무주군, 인구정책 비전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분야별 인구유입 전략 눈길

무주군 인구정책 종합추진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황인홍 군수를 비롯한 무주군 공무원들과 김동영 책임연구원과 전북연구원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7일 열려 큰 관심을 모았다.

무주군은 이번 연구 용역을 토대로 "출산에서 양육까지 무한책임, 일자리에서 삶의 질까지 주민행복"이라는 인구정책 종합추진 계획의 비전을 수립했으며 비전달성을 위한 출생아 수(124명->150명)와 사업체 수(2,270개->3,000개), 귀농·귀촌인 수(800명->1,000명), 인구 순유입 수(55명->100명), 관광객 수(520만 명->600만 명)에 대한 구체적인 달성 목표를 세웠다.

이는 저출산·고령화시대에 대응하고 교류 및 체류인구 증대와 지역공동체 및 지역활력을 키우겠다는데 기반을 둔 것으로, 출산양육에 있어서는 결혼지원 꾸러미정책과 육아 행복누림 커뮤니티센터 운영, 빠른 출산 우대정책을 추진하고 공공형 키즈카페 설치와 다문화가족 Jump-up 교육지원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무주군 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무주군 기업 구성원 주소 이전 촉진 방안 강구, 무주군 창업토탈센터 운영, 스마트 슬로우라이프 청년업무지구 조성, 무주형 혁신기업을 선정하는 방안을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정주환경과 관련해서는 무주 지속가능 농촌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무주 3대 생활경제권 활성화와 정주여건 취약마을 기초인프라 개선, 무주 찾아가는 해피하우스 사업단 구축, 무주 대중교통 준공영제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관광·교육 분야에서는 무주방문의 해를 개최하고 관광두레를 확대 추진하는가 하면 안성칠연지구 관광자원 개발과 선진형 관광수용태세로의 개선, 공립학원과 태권도 국제 대학원대학교를 설립·운영하는 방안을 고심중이다.

이외에도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마을연계 체제형 가족농원을 확대하고 거점읍면 귀농임대주택을 조성한다. 귀농귀촌일자리 이음과 귀농귀촌 화합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한편, 창업경진대회 등을 개최하고 귀농자 연계 시설채소 재배를 지원한다. 여성맞춤형 귀농학교와 귀농귀촌 여성재능기부단을 운영하는 방안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황인홍 군수는 "우리 군은 65세 이상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사망률 증가와 결혼, 출산 가능 젊은 층 인구 감소 문제로 어느 때 보다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라며 "인구절벽을 거뜬히 넘어서기 위해 이번 연구용역를 추진했던 만큼 모두가 바라고 원하는 결과물이 현실에서 완성될 수 있도록 실행력을 발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인구정책 종합추진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열렸다.

"농촌 폐비닐 매립·소각 환경오염 심각"

장수군의회 나금례 의원 농토 황폐화 문제점 지적

장수군의회 나금례 의원은 제29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농촌의 폐비닐 매립·소각과 방치 등에 따른 농토 황폐화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나금례 의원은 "현재 농촌의 전답과 마을주변에 폐비닐이 방치돼 환경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로 인해 주민들의 건강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행정당국의 빠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국도비로 지원되는 농촌일자리 창출예산을 활용해 군폐비닐 수거사업단을 각 읍?면별로 운영하고, 현재 관내 28개인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을 연차적으로 추가 설치해 전 마을로 확대해야 한다"며 "수거 인센티브도 등급별 인센티브 지급 외에 수거 우수마을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일정량 이상 수거 목표량을 달성한 마을에도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해 수거에 대한 의욕을 고취하고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폐비닐 수거 실적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이 필요하다"고 대책을 제안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읍 당산마을 도시가스 공급 개시

전북도시가스, 연말까지 70가구 107세대

무주군 무주읍 당산마을 도시가스 공급이 17일 시작됐다.

당산마을 도시가스 공급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설치비 지원 사업(군비 1억 4천만 원, 도 보조금 6천만 원, 전북도시가스 6천만 원)과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사업(군비 4천 9백 60만 원, 자부담 4천 9백 60만 원)로 진행된 것으로, 무주군은 지난 10월부터 2개월 간 70가구 주민들의 신청(계약)과 동의 절차를 거쳐 가스배관 설치와 보일러 교체 등의 도시가스 전환공사를 진행 중으로, 각종 공사와 검사가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도시가스 공급을 진행할 계획이다. 추가 신청세대에 대해서도 접수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주군 산업경제과 허준철 지역경제팀장은 "당산마을 70가구 107세대(도시가스 신청 및 계약 가구·세대)에 도시가스 공급이 되면서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난방비용 절감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라며 "겨울이면 난방비 걱정에 한숨짓던 주민들의 에너지 복지에 기여할 수 있게 돼 기쁘다"라고 밝혔다.

한편, 무주읍 당산마을에는 총 110여 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단계별로 도시가스가 들어가고 있는 무주읍내 주변 지역과 인접해 있으면서도 그동안 경제성 미달을 이유로 도시가스 공급에서 소외돼 오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요구와 행정의 노력으로 오랜 숙원을 풀게 됐다.

/무주=전문선 기자

저소득 기초연금수령자 생활실태 전수조사

진안군 안천면 행정복지센터 내년 2월 15일까지

진안군 안천면 행정복지센터(면장 최방규)는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내년 2월 15일까지 약 60일 동안 저소득 기초연금수령자를 대상으로 복지사각지대 생활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일제조사는 국가나 사회로부터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방치된 사회적 약자를 찾아 이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대상은 안천면에 사는 저소득 기초연금수령자로 16개 마을, 253가구다. 조사기간 동안 복지담당자가 대상가구를 직접 방문해 현황을 파악하고 기초수급신청, 긴급지원 등이 필요한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발굴 대상자에게는 최우선적으로 복지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자격조사를 통해 공적 지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지원 등)을 하게 된다.

안천면은 발굴된 세대를 대상으로 긴급지원제도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지원하고 소득기준은 충족하지 못하지만 돌봄 등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가구에 대해서는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공적 부조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나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가정 방문을 실시해 어려움을 해결하고 후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 서비스 연계 대상자로 우선 선정해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올 한 해 동안 안천면 행정복지센터는 총 235가구, 317명에게 컨벡터(21가구), 전기온수기(8가구), 난방유(11가구), 생필품 (160가구), 기타 등(35가구) 약370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주민에게 큰 도움을 줬다.

최방규 면장은 "힘겹게 살아가는 주민들을 적극 발굴해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는 복지행정을 펼치겠다"며 "주변에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가구가 있다면 언제든 안천면 행정복지센터(430-8412)로 연락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동절기 건설공사 일시중지

진안군은 오는 20일부터 내년 3월 초까지 각 사업장 별 시공여건 등을 감안해 겨울철 건설공사를 일시중지 할 계획이다.

동절기 기온 급강하에 따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품질저하와 부실시공 예방 및 건설현장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공사를 중지키로 했다. 군은 공사 중지기간 중 콘크리트 공사 시행 시 제 규정 준수와 품질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각 업체에 요구했다.

또한 절·성토법면 붕괴위험구간 안전시설 설치, 공사구간 안전사고 대책수립 및 비상연락망 구축, 공사현장 내 외부인 출입통제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각 현장을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동절기 공사를 중지하는 것은 공사에 따른 하자발생과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할 뿐만 아니라, 현장근로자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메아리

진안군 명예감찰관 간담회

진안군은 17일 명예감찰관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한 군정 구현과 명예감찰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18년 명예감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군 명예감찰관은 군민이 참여하여 생활현장의 각종 여론과 불편사항을 수렴?해결하고, 공직부조리와 부패방지를 통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 읍·면별 1명 이상을 선정 운영하고 있다.

군민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공개모집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명예감찰관들은 청렴도 제고와 자체 감사활동 개선을 위한 여러 의견을 제시하며 감사활동에 대한 높은 관심을 표했다.

육완문 기획감사실장은 "지역발전과 군민화합을 위한 가교역할을 성실히 수행한다는 사명감으로 부패척결과 소통을 위해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이어 "명예감사관들이 군의 청렴지킴이로써 적극적인 제보활동과 참여를 통해 청렴 진안이 구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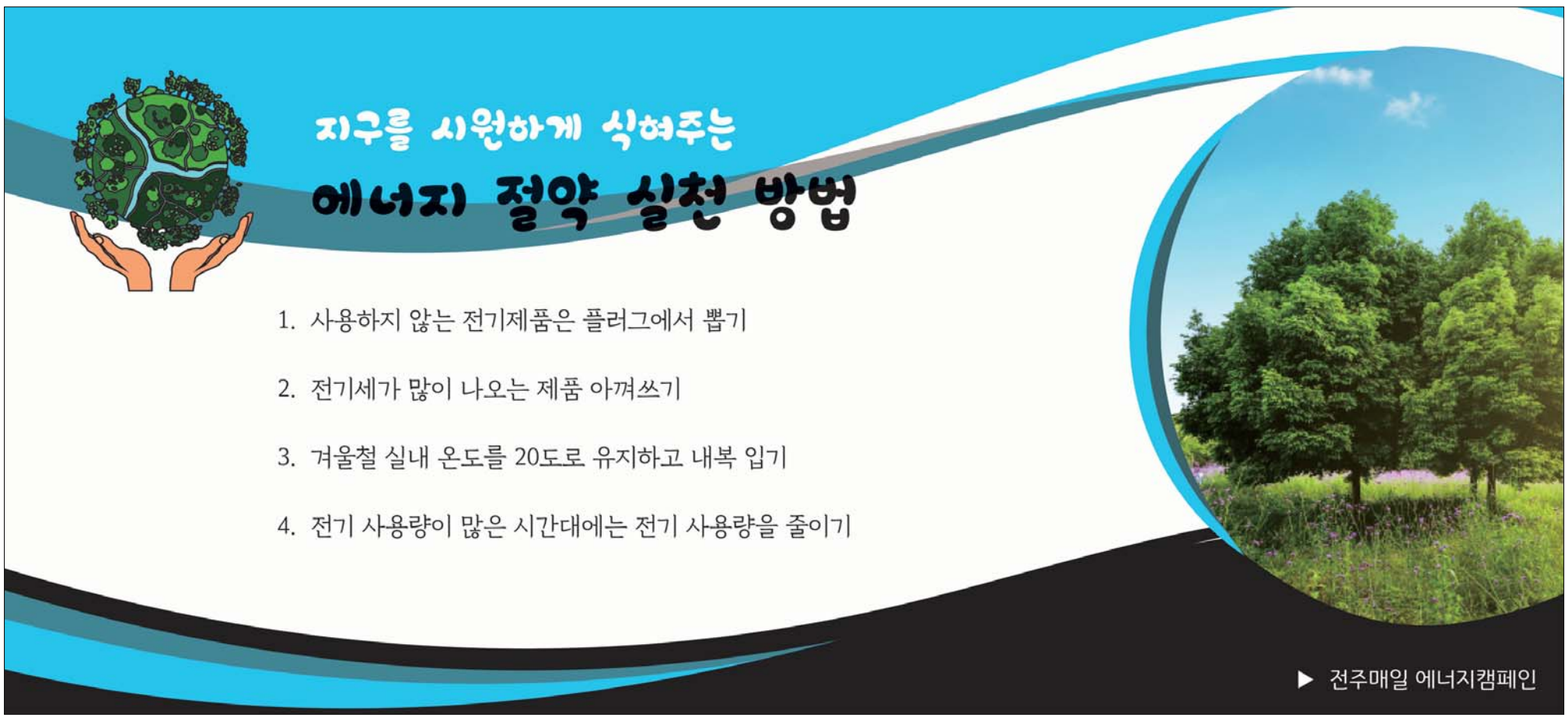
2018년 장수 미래발전 포럼

장수군이 주민 주도적 미래발전 수립을 위해 민관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장수군 발전 방향과 핵심 전략을 모색했다.

장수군은 17일 장수군민회관에서 장영수 군수, 농수산대학교 박광호 교수, 전주대학교 최영기 교수, 관계자 및 주민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장수 미래발전 포럼'을 개최했다.

'힘찬 장수발전의 방향과 미래전략'이라는 주제로 열린 포럼은 호원대학교 송재복 교수가 사회를 맡았으며 박광호 교수(국립 농수산대학교)의 '장수군 스마트필드 농업과 좋은 일자리 창출'주제 발제로 송남수 이사장(사단법인 장수지역활력센터)과 서병선 대표(사단법인 장수시대), 김병렬 대표(사단법인 장수문제연구소), 김경훈 팀장(장수신농영농조합 유통마케팅)이 토론을 펼쳤다.

또 최영기 교수(전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의 '정부 관광정책과 장수군의 대응전략'이라는 주제 발제로 최 교수와 김영미 교수(동신대학교 관광경영학과)가 장수군이 수립해야할 관광정책에 대해 모색했다.

장영수 군수는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장수의 발전과 지역성장을 위한 새로운 미래상을 요구하는 현재 장수군은 주민들이 스스로 찾아내는 미래비전을 수립하고자 한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장수건설을 위해 함께해주신 군민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